

로그인 회원가입

BTN바로가기 BTN온에어 편성표

BTN 뉴스

오전 7:00, 10:00 / 저녁 7:00, 10:00

검색 할 기사를 입력하세요.

종단 포교 문화 사회 신행 전체뉴스 실시간뉴스 포토뉴스 행복한불서 이슈&피플 세계불교 전국 날짜별뉴스

최종편집 : 2021.10.12 화 09:10 (불기 2565년)

ARS 060-800-7000 ♥ BTN 정기후원하기

HOME 문화

천리순례 앞두고 송광사 괘불 60년 만 공개

광주지사 김민수

승인 2021.10.01 07:30

댓글 0



[앵커]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가 1961년 조성한 대형 괘불을 대웅전 앞에 모시고 괘불재를 봉행했습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재를 하루 앞두고 6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는데요, 산사음악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아단법석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인 스님들이 정성스럽게 이운한 괘불이 야외에 마련된 법석 위에 펼쳐집니다.

화려한 색감과 수려한 모습의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내자 사부대중은 환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1961년 불화장 일섭스님과 13명의 화원들이 조성한 괘불은 코로나19 종식을 바라며 60년 만에 대중 앞에 공개됐습니다.

자공스님 /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 주지

(지극히 어렵던 경제 여건 속에 송광 면민과 신도들이 여름에는 보리 한 되, 쌀 한 되를 원납하면서 음력 6월 25일에 완공되니 이를 점안해 봉안하고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전체뉴스



2021년 10월 12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11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09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08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07일 전체뉴스

인기뉴스



나누며하나되기, 4천만 원 상당 마스크 후원받아



관음종 부산 무문홍법사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상 훼손 당해



진관사 찾은 펭수 "내면 진심 깨달아"



무문홍법사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상 훼손



해동용궁사, 조계종 화엄사 말사로 등록

수덕사승가대학장 역임 밀양 무이정사 주지 무이거 부스님 입적



"종교화합 저해 가톨릭 성지순례 길 중단해야"

사람 나이로 60년 회갑을 맞아 딱 5일 간만 공개되는데 송광사는 삼보의 존귀함을 알리기 위해 천리길 떠나는 순례단을 응원 하기위해 출발 하루 전 괘불재를 열었습니다.

전국의 다인들도 차 공양을 올리고 시음회와 찻 자리도 열어 우리차를 알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경우스님 / 고창 선운사 주지

(오늘 괘불재를 모시면서 한국 선차의 본고장답게 전국의 유명한 다인들이 다양한 찻 자리를 펼치면서 송광사의 예전 다풍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방장 현봉 대종사는 야단법석 어원의 의미를 설 하고 괘불전에 코로나19의 종식을 발원했습니다.

남은당 현봉 대종사 /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 방장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야단법석입니다.)

이어 열린 산사음악회는 김묘선 선생의 승무와 퓨전그림 지음의 연주 등 다양한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송광사 사부대중은 오랜만에 야단법석을 열고 전쟁 직후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조성됐던 괘불 부처님의 환갑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BTN뉴스 김민수입니다.

광주지사 김민수 btnnews@btn.co.kr

BTN 뉴스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

좋아요 0개

광주지사 김민수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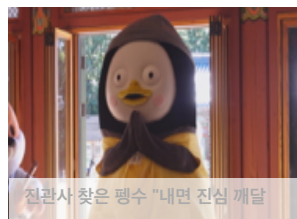
진관사 찾은 펭수 "내면 진심 깨달아"

(삼보사찰 천리순례 4) 백두대간 무사히 넘어

(나랏말싸미 7) 한글날과 신미대사

봉은사 개산 1227주년 역대조사 다례재 봉행

(삼보사찰 천리순례 5) 공동체 정신 배워



진관사 찾은 펭수 "내면 진심 깨달아"

기사 댓글 0개

전체 보기

기사의견을 등록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0/300

✓ 등록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BTN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사업안내\(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독자투고](#)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불교텔레비전(주) | 제호 : BTN불교티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84
등록일 : 2007년 12월 27일 | 발행인 : 구본일 | 편집인 : 남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호성 | 전화번호 : 02-3270-3385
BTN불교TV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콘텐츠 문의 : 02-3270-3385)
Copyright © 2021 불교텔레비전(주)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